



사육형태에 따른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전파속도 차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에 감염되었을 때 사육형태, 관

리상태, 사료급이 및 급수형태 등에 따라 전파속도 및 폐사율 증가에 차이가 있어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평사에서 키우는 종계 또는 육계

닭끼리의 직접적인 접촉빈도가 매우 높아서 HPAI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충북 음성읍의 국내 최초 발생농장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폐사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계사내의 모든 닭이 거의 폐사하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었고, 2차 전염으로 인한 인접계사에서의 폐사는 1주일 정도 지난 후 나타남(동일한 관리인).

· 6,000수 계사의 경우 첫 1~2일간은 10수, 100수 단위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수백수에서 1,000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음.

2. 케이지에서 키우는 산란계 또는 종계

- 양산의 최초 발생농장과 경주 및 양주 발생농장의 경우 초기 수일간은 계사의 군데군데에서 가금티푸스 발생 때와 같이 케이지의 수직방향으로 폐사가 서서히 나타나다가,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여 평사사육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가금티푸스 또는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질병 발생초기에는 항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혈청검사로써 질병 감염여부를 판단하면 안됨.

- 체인식 사료급이시스템은 질병의 확산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우수식 급수관보다 닢플식 급수시스템에서는 질병 전파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발병계사와 비발생계사의 관리인이 다를 경우 인접계사로의 질병전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이 사육형태에 따라서도 전염속도나 폐사 진행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사율이 평소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C